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과제 문화 분야 무관심”

도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문화 이행 계획 재탕 수준
연속성 아닌 철학 보여줘
후보 시절엔 문화 예산 3%
인수위 과정 2%로 낮아져”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 과제 중 문화 분야 내용이 ‘재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 예산 축소 문제도 거론됐다. 제주도의회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위성곤 지사가 후보 시절 제주도 문화 예산을 전체의 3%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100대 정책 과제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된 점을 꺼낸 뒤 “민선 9기 도정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철학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창작·유통·향유가 순환하는 제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주 예술 생태계 구축’에 담긴 이행 계획도 들어다봤다. 김 의원은 민관 협치 거버넌스,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예술 벨트 구축 등을 들며 “민선 8기 도정의 뒤를 거의 밟아가고 있다. 소위 재탕 잔치인 듯하다. 누군가는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속성이 아니라 무관심처럼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도 문화 예산 확보를 문제를 다뤘다. 그 역시 “선거 초기 3% 예산을 약속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2%로 낮아졌다. 그런데 민선

9기 100대 과제에서는 목표 수치 자체가 빠졌다. 누가 어떤 의도로 뺐는지 말씀해 달라”며 “수치가 없으면 검증도 어렵다. 공약실천계획을 작성할 때 최소 목표치를 명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인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전체 예산 대비 최소 2% 이상의 문화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전하며 “앞으로 공약 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봉현 의원은 제주의 새로운 성

장 동력 중 하나로 K컬처에 주목하며 제주형 한류산업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한류 관광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부도 K컬처 아레나를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는 2025년 10월 새 정부 지역 과제로 장관에게 1회 건의 이후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고 기획설계비가 반영된(아레나 관련) 용역은 시작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류산업에 대한 전략도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김 의원은 제주형 한류산업진흥 조례 제정 검토 등 도의회가 먼저 판을 깔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집의에 앞서 지난 11일 위 지사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그렇게 급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질었다. 정 의원은 “(지사는) 업무보고에 관심이 없다.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안을 갖고 도민과 소통을 하면 시너지가 날 게 아닌가”라며 “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꽃자왈 나무의 언어에 귀 기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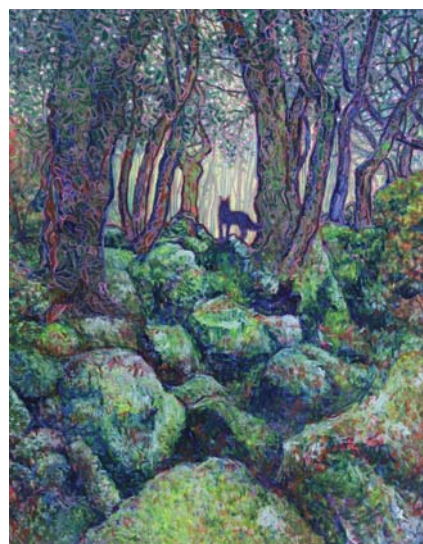
제주공예박물관 기획전
‘꽃자왈, 께(櫃)를 열다’
꽃자왈 주제 홍일화 작업
박물관 소장품과 나란히

제주 사람들의 생활 도구 등을 만드는 데 귀하게 쓰였던 나무, 그 나무들이 어울려 사는 섬의 숲. 이 둘의 이야기를 엮은 전시가 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공예박물관에서 이달 15일부터 펼쳐는 기획전이다.

전시에 달린 제목은 ‘꽃자왈, 께(櫃)를 열다’. ‘꽃자왈 화가’ 홍일화 작가의 작품과 제주공예박물관이 소장한 민예품을 나란히 선보인다.

“내 삶과 작업의 가장 큰 스승은 꽃자왈”이라는 홍일화 작가는 최근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주최로 서울 광화문 라이나타워 1층 로비에 서 초대전을 열고 있는 이다. 이 전시에는 신작 ‘늑대와 개의 시간’ 등 30여 점이 나온다. 홍 작가는 “역사 이래 우리에게 아낌없는 기적을 베풀어 준 나무와 숲을 이제는 우리가 살려야 할 때”라며 “‘나무의 언어’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양의숙 제주공예박물관장은 “제주민들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선택해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굴무기’(느티나무), ‘사오기’(벚나무) 등 “척박한 돌 틈에서 웅골지게 자란 나무”들이 창조해낸 제주의 생활미를 느낄 수



홍일화의 ‘늑대와 개의 시간 0323’ (2026).



제주께.

제주공예박물관 제공

있는 전시로 초대했다. 박물관에서는 제주살래, 제주께, 발께(뒤주) 등 30여 점의 소장품을 공개한다.

전시는 8월 30일까지. 오프닝은 15일 오후 5시. 8월 5일 오후 4시에는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홍 작가는 한국미대환경협회 홍보대사, 파리 재불작가 소나무협회 회원, 한국관화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선회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대 미술학과 ‘글로벌 런케이선’=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인 판화 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 타 대학교 교류 재학생 등이 참여해 제주돌문화공원 야외 실습장과 전통 조가 구역에서 친환경 건식 탁본(프로타주) 기법으로 돌담 문양과 고목, 이끼, 잎맥 등 자연물의 표면 질감을 회화적으로 채집하고 아카 이방한다. 결과물은 ‘런케이션 아카이브 기록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월 전문·문화교육=건축도장기능사·핸드드립·부동산 경매 등 17개 과정을 운영한다. 자격증 취득, 디지털 활용,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도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장인 등을 위한 주말·야간 과정도 있다.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모집.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 참고.

▷제주시 공공 도서관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우당도서관의 ‘마음

과 생각을 쏙쏙 키우는 책 읽기’, 기획의도서관의 ‘기적 같은 생명의 힘’, 조천읍도서관의 ‘반짝이는 여름, 꿈꾸는 우리’ 주제 프로그램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탐라도서관 ‘모래로 그리는 우리들의 인권’=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8월 1일 오후 2시 탐라도서관 강의실에서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여름 방학 프로그램=‘벨롱벨롱 벨라진 과학캠프’ ‘꿈바당 와랑와랑 도강스’를 이달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과학캠프’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이고 ‘...도강스’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세계 청소년 합창축제·경연 무대

이달 15~18일 서귀포예당
국내외 13팀 530여명 참가
중·고 독창 우승자 특전

세계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무대가 제주에서 펼쳐진다.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예당 의전당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 청소년 합창축제&경연대회 인 제주’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천송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미국, 홍콩, 중국, 베트남 등 해외 4개국 6팀 272명과 국내 합창단 7팀 261명 등 13개 합창단 5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첫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합창 경연과 청소년 문화 교류, 합창 워크숍, 시상식, 폐막 공연이

잇따른다. 폐막 공연에선 포항 연주 단체인 바첼스트링스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해외 주요 참가팀은 미국의 뉴오렌지카운티 어린이합창단, 중국 선양시방송국 어린이합창단, 사오싱레티안 합창단, 보이스 오브 쉐저우, 홍콩 홀로페일리 카노시안 합창단, 베트남 빈스쿨원 등이다. 국내에서는 코리아엔젤스어린이합창단, 중원예트락 합창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더상상광이아, 인천시립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제주 노크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선 기존 합창 부문에 더해 ‘중등부 및 고등부 독창 경연대회’를 신설했다. 독창 부문 우승자는 이탈리아의 루카 신포이나 음악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특별 연수 기회를 갖는다.

전선회기자

전시 소식

▷유종욱 개인전 ‘파레이돌리아’=전시 제목으로 끌어온 파레이돌리아(Pareidolia)는 흩어진 조각 속에서 말의 형상을 발견하는 현상을 일컫는 인지심리학 용어. 무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려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는 그 여정 속에 마주한 형상을 순수한 곡선으로 응축하고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파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상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갤러리 애플.

▷산만인류: 산만(SANMAN) DNA-인공지능(AI)의 빠른 정답 속에서 ‘질문하는 능력’에 주목한 스튜디오 산만의 기획전. 전시장은 2060년 고고학 발굴 현장에 있는 연구실(현장 기지)로 연출됐다. “AI 시대에 산만함은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산만함을 부정적 결말이 아닌 다변하는 환경 속 인류가 선택한 능동적 생존 기제이자 에너지 상태로 재정의한다. 이달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라바르 2층 갤러리뮤즈.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대전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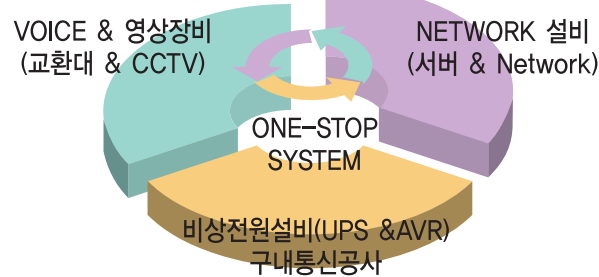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은주)는 국제 유가 급등과 이상기온 및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 농작물 병해충 증가 등 당면 과제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생활 개선회가 앞장서는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제주본부 후원으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대전환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가까운거리리는 걸어다니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안 쓰는 조명 소등하기, 여름철 적정온도 26도 유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회원들은 지난 4월부터 월 4회 제주도 전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햇빛바람소독마를 홍보 등의 교육을 4회 실시하여 에너지 대전환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은주 회장은 2035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에너지 수급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은주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